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3, 645 - 669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사회적, 진화적 유용성: 교재 성공 및 성적 전략의 차이

이 흥 표[†] 김 수 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 상담심리학과

김 교 헌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평판에 진화적,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짝짓기와 생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으며 장기적, 수렴적인 짝짓기 전략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외모 및 능력에 대한 평판은 남녀에 따라 성적 전략이나 선호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모와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한 사람과 지속적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도 추구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거 이성관계와 성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수도 높아 단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외모나 능력 평판에 상관없이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오히려 이러한 평판 요인이 높은 여성들일수록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관련된 남녀의 장기적, 단기적 성적 전략이나 선호도의 차이 및 평판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였다.

주요어: 사회적 평판, 짝짓기, 성적 전략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적응

진화적으로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였으며, 이런 인간에게 서로 협

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좋은 사회적 평판(goodness in reputation)이었다(Alexander, 1987; Mohtashemi & Mui, 2003).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평판이 좋은 사람이 호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흥표, (712-714) 경상북도 내리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Tel: 053-850-4083, E-mail: youbefree@dcu.ac.kr

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의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Fehr & Fischbacher, 2003; Ohtsuki & Iwasa, 2004) 이 때 사회적 평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거나 그른지 집단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평가와 인식이자 이러한 평가가 전파된 소문”(언어정보개발원, 1998)을 말한다. 즉, 사회적 평판이란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공유되는 한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평가 내지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란 “이러한 자신에 대한 무리의 평가가 어떠한지 한 개인이 지각한 것(이홍표, 한성열, 2006)”을 말한다.

최근 이홍표와 한성열(2006)은 진화심리학적 추론에 의거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가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책임감,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공감적 이타성(이하 이타성)은 친절하고, 배려를 잘 하며, 격려하고, 같이 걱정해준다는 평판을 말하며 호혜적 신뢰성(이하 호혜성)은 상호간에 비밀을 잘 지키고, 속이거나, 거짓말과 배신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타성과 차이가 있다. 책임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일을 열심히 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평판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능력 유능감(이하 능력) 평판이나 외모 유능감(이하 외모) 평판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가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앞의 세 가지 요소와 다르다. 예컨대 능력 평판은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말하며 외모 평판은 신체적 매력 높거나, 이쁘고, 날씬하다는 등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평판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 역시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18~21%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었다(이홍표, 이홍석, 2006). 그러나 남성에게는 높은 능력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반면 여성에게는 높은 외모 평판이 심리적 안녕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는 능력 평판이 정서적 안녕감이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가치 평가나 삶의 만족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평판에는 더 큰 사회적, 진화적 의미가 존재한다. 사회적 평판이 사회적 삶에 중요한 이유는 집단 구성원의 평판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거절의 대상이 되며(Ohtsuki & Iwasa, 2004), 궁극적으로 협동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이홍표, 한성열, 2006). 따라서 사회적 평판은, 특히 책임감이나 호혜성, 신뢰성 등과 같이 한 개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협동에 중요한 평판 요인은 상보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평판요인과 유사한 성격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Big-five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구성원의 애인을 뺏으려는 경향이 적고 이성의 유혹에 낮은 반응을 보이며(Schmitt & Buss, 2001), 어린 자녀를 민감하게 보살피고(Clark, Kochanska, & Ready, 2000),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회피한다(Trobst, Herbst, Master, & Costar, 2002). 우호성은 정서적 지지 및 양육과 관련이 있어 우호성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반응성과 감정 이입도가 높으며(Clack et al., 2000)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Tobin et al., 2000). 또한 우호성은 집단의 안녕 및 조화로운 가족관계의 지향과 정적 관련이 높은 반면 경제적 부나 정치적 영향력, 스틸있는 생활방식에 대한 욕구와는 반비례하였다(Robert & Robins, 2000).

더욱이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는 진화심리학적 가설에 의거하여 구성,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직접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 즉 평판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참고한다. 이렇게 만일 사회적 평판에 진화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좋은 평판은 고대의 선조 때부터 인간의 적응과 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지금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개체는 인간이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필수적인 짝짓기(mating)나 번식(reproduction)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반면에 나쁜 평판을 받은 개체는 지위 경쟁이나 자원 획득에 제한을 받게 되어(Alexander, 1987; Mohtashemi & Mui, 2003) 번식과 생존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평판의 진화심리학적, 사회적 의미를 검증하려면 좋은 평판이 개인이 지각하는 매력도나 짝짓기 성공 정도의 지각에 과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좋은 평판에 사회적, 진화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면 평판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며, 미래에 이성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 짝짓기 및 번식 성공의 예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실제 이성관계나 성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는 양적, 질적인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 양적 차원이란 이성관계나 성관계 및 성접촉 빈도가 많거나 적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질적 차원에서는 다수의 이성과 관계를 맺는 전략(단기적, 확산적 전략) 및 소수의 이성과 깊이 있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장기적, 수렴적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양성의 성적 전략, 방식의 차이

양성의 성적 행동이나 전략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Trivers(1972)의 양육 투자이론(parental investment theory)과 Buss & Schmitt(1993)의 성 전략 이론(sexual strategies theory)에 의하면 여성은 자손에게 투자해야 하는 양육 투자의 의무가 남성에 비해 무겁다. 수태와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져 있으며 남성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자원과 지위가 높거나 획득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호하도록 진화하였다. 반면에 남성은

적은 투자로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음과 미, 신체적 외모 등 번식적 가치(reproductive value)가 높은 여성을 선호하도록 진화하였고 성적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실제로 여성은 재정적 장래성의 중요도를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며(Buss, 1989; Buss, Shakleford, Kirkpatrick, & Larson, 2001, Wiederman, 1993) 교육 수준과 전문성에 큰 가치를 두는 반면(Buss & Schmit, 1993)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선호하고(Buss & Shmitt, 1993; Buss et al., 2001) 더 많은 성적 파트너를 추구하며 문화에 상관없이 단기적 전략을 선호한다(Buss, 1994; Buss & Schmitt, 1993; Oliver & Hyde, 1993; Schmitt, Shackelfold & Buss, 2001; Symons, 1979).

그러나 남성이 항상 단기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Gangestad와 Simpson(2000)의 교환과 전략적 복수주의(trade-off and strategic pluralism) 이론에 의하면 양성은 모두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채택하는데 따른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여 행동한다고 한다. 남성의 단기적 성적 선호도나 전략은 이런 단기적 전략에 호응하는 여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그런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성으로써는 자녀의 양육 투자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전략은 항상 단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배우자의 자녀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부성(paternality)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남성들은 장기적 관계에 헌신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며, 어떤 포유류보다도 인간의 남성은 더 큰 양육 투자를 한다(Alexander & Noonan,

1979).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남성은 장기적 전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지만 이와 동시에 혹은 상황에 따라 단기적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성적 전략은 조건적인 짝짓기 전략(conditional mating strategy)(Gross, 1996; Trivers, 1972)으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장기적 전략이 선호될 수도 있고 단기적 전략이 선호될 수도 있다. 만일 사회적 평판이 이러한 성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면 호혜성, 이타성 및 책임감 평판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친사회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런 평판과 불일치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그럴 경우 평판이 나빠진다)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외모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은 친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매력이나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하는 사회적 징표이자 번식 가치이기 때문에(장기적 관계 추구나 양육 투자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 전략을 추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단기적 전략을 추구하거나 단기적 관계로 전략을 전환하는 여성들은 장기적 전략을 선호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의 신체적 매력과 더불어 즉각적 자원의 제공 여부, 신체적 보호 등을 중시한다(Buss & Schmitt, 1993; Gangestad & Simpson, 2000; Smith, 1984; Smuts, 1992)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여성은 자손에게 투자해야 하는 양육투자의 의무가 남성에 비해 무거우며 모성의 확실성(maternal certainty)이 보장된다. 더욱이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는 자원과 더불어 주변의 지원과 이타적 행

동 역시 중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성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집단 성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호혜적 도움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비친족들과 흔히 우정 관계를 형성하며(Davis & Daly, 1997) 가족이 양육을 함께 돕는다(Buss, 2004). 그러므로 여성으로써는 충실하고 안정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으로써는 (짜짓기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유용한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짜짓기를 보류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며, 자원이 많고 이타적인 남성과 장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이와 달리 여성도 좋은 유전자(good gene)를 획득, 유전적 적합도(genetic fitness)를 증가시키기 위해 단기적 전략을 추구한다는 주장(Simpson & Gangestad, 1991)도 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들 역시 단기적인 짜짓기 전략을 추구하는데(Gangestad & Buss, 1993) 이 때는 여성들 역시 지배적이고 외향적일 뿐 아니라 신체적 남성성과 용맹성이 높은 남성의 신체적 매력에 큰 비중을 둔다(Buss & Schmitt, 1993; Gangestad & Simpson, 1990). 특히 병균이 많은 사회일수록 여성은 남성의 신체적 매력에 높은 비중을 둔다(Gangestad & Buss, 1993). 이는 여성이 자원 확보와 유전자 확보 사이에서 맥락에 따라 성적 선호도나 방향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Gangestad와 Simpson(2000)의 이런 가설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현대 사회는 병균이나 기생충

으로 인한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낮은 환경에 속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Gangestad와 Simpson(2000)은 양육 투자 이론의 기본적 초점을 간과하고 있다. Trivers (1972)의 관점에 의거한다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모계의 확실성이 보장되며 여러 남성과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할 수 있는 다산성(fertility)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써는 자원의 결여나 나쁜 유전자로 인한 유아 사망과 같은 심각한 유전적, 환경적 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성의 성적 선호도나 방향에 사회적 평판이 영향을 미친다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장기적 배우자 선호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판지수가 높을수록 더욱 더 장기적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남성 역시 장기적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계 반응성과 같은 특성을 중시하며, 친절하고 온정적인 이성을 선호한다(Buss & Barnes, 1986; Swami, Miller, Furnham, Penke, & Tovee, 2008). 그러나 남성에게서는 외모나 능력 평판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남성은 단기적 파트너를 선택할 때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강하게 선호하지만(Buss & Schmitt, 1993) 장기적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신체적 매력도가 높은 여성을 선호한다(Furnham, Moutafi, & Baguma, 2002; Singh & Young, 1995). 결국 남성이 단기적, 장기적 전략을 추구할 때 신체적 매력도의 선

호 차이는 매우 적으며, 선호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도 않는다(Swami et al., 2008). 이런 남성의 성적 선호도가 여성의 성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장기적 전략의 지표로(단기적 추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조건적일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반면에 남성은 자원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특별히 선호하지 않으며, 단기적 관계를 추구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Buss & Schmitt, 1993).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여성에게 높은 능력 평판은 긍정적 자기 평가나 삶의 만족도의 지표였으며(이홍표, 이홍석, 2006)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자원과 능력은 점점 더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여성에게 능력은 단기적 관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거나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계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은 좋은 능력 평판을 자기 만족의 자원임과 동시에 좋은 배우자의 지표로 내세울 수 있다. 사실 좋은 유전자나 신체적 보호, 번식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단기적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얻을 이득은 남성에 비해 극히 낮다. 오히려 (부계 중심 사회에서는) 문란하다는 평판을 받게 됨으로써 장기적 관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Buss & Schmitt, 1993), 배우자와 가족의 도움없이 자손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오히려 (장기적 관계에서 추구되는) 남성의 지위와 자원 획득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Buss, 1989; Townsend, 1989; Winederman & Allgeier, 1992). 따라서 현

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능력 평판은 외모 평판보다는 낮지만 장기적 관계에 중요한 자원일 것이며,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들 역시 장기적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신체적 매력, 짝짓기 및 번식 성공 가능성의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장기적, 수렴적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외모나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3) 여성들은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장기적, 수렴적 전략을 선호할 것이며, 외모나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들 역시 장기적, 수렴적 전략을 선호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연구대상은 서울과 대전, 충청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67명이었다. 이 중 기혼자 및 반응 결손이나 무선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참여자를 제외하고 최종 244명이 연구대상이었다. 평균 연령은 22.09세(SD=3.45),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34세였으며 남성 135명(55.3%), 여성 109명(44.7%)이었다. 결혼 상태는 모두 미혼이었고 대학생 219명(89.8%), 대학원생 25명(10.2%)이었다.

측정도구

지각된 사회적 평판.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이흥표, 한성열, 2006)는 한 개체가 소집단이나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와 신뢰를 얻고 협동의 대상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의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평판은 이타성 6문항, 호혜성 7문항, 책임감 6문항, 능력 3문항, 외모 유능감 4문항이며 7점 척도,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으며 이타성 .85, 외모 .79, 책임감 .86, 호혜성 .82, 능력 .78이었다.

지각된 신체적 매력. 지각된 신체적 매력(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척도는 이성관계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신체적, 성적 매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Goetz, Shackelford, Weekes- Shackelford, Euler, Hoier, Schmit, & LaMunyon(2005)의 질문지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질문지에서는 “파트너가 얼마나 성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와 같이 파트너의 신체적, 성적 매력 지각도를 측정하는 4가지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를 나로 전환하였으며 2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척도(self-perceived mating success scale)는 Landolt, Lalumiere, & Quinsey(199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Landolt 등(1995)의 척도는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이성의 호응도와 관계 성공 정도를 측정하는 8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낮았던 1문항(“나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수 있

는 파트너가 많이 있다”)을 제외하고 7문항을 사용하였다.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성관계 및 성적 접촉과 관계 성공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제작,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과거에 이성을 얼마나 쉽게, 많이 사귀었으며 성적, 신체적 파트너가 얼마나 있었는지, 애인 외에 다른 파트너가 있었는지 양적 측면을 측정하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7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정도.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이성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생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예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제작,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성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성적, 신체적 접촉을 맺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관계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1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

SPSS 12.0을 이용해 내적 일치도 분석과 공통요인분석, 주축분해법, 사각회전을 통해 신체적 매력 지각 척도, 자기-지각된 짝짓기 성공 척도,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정도 척도, 지각된 이성 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이 때 요인 부하량이 .3 이상, 문항-총점 상관이 .3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에는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 및 외모와 능력 평판이 단기적, 장기

적인 성적 전략과 상관성이 있는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각 평판 수준에 따라 성적 전략과 선호도에 성차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결 과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내적 일치도 및 수렴, 변별 타당도 검증

지각된 신체적 매력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사각 회전후 1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문항-총점 상관성이 .3이하이거나 요인 부하량이 .3 이하, 공통분이 .3 이하인 문항은 없었다. 척도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은 표 1과 같았다. 척도에 속한 6문항의 고유근 합은 4.43, 설명변량은 73.80%이었으며 내적 일치도 α 는 .94였다.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사각 회전후 2요인이 도출되었으나 고유근이 1이상인 요인은 1개였으며 이에 따라 1요인으로 가정하고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많이 있다”의 요인 부하량이 .007이었고 문항-총점 상관성이 .253으로 낮아 제외하였으며 문항 2와 7의 공통분이 .238과 .209로 다소 낮았지만 요인 부하량과 문항-총점 상관성이 양호하여 척도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은 표 1과 같았다. 척도의 고유근 합은 3.38, 설명변량은 48.20%이었으며 내적 일치도 α 는 .85였다.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척도에서는 1 문항(“나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자주 갖는 편이었다”)의 요인 부하량이 낮아 이를 제외한 후 사

각 회전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7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패턴 행렬의 요인 부하량과 공통분은 표 1과 같았다. 1요인은 문항 1, 2, 3으로 “과거에 이성을 쉽게, 많이 사귀고 성적, 신체적 접촉을 자주 가졌던 정도”를 반영하여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문항 4, 5, 6, 7로 “과거의 성적, 신체적 접촉 파트너 수”를 주로 반영하여 “성적 파트너 수”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두 요인 모두 이성관계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을 반영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었으며 척도의 고유근 합은 5.60, 설명변량은 69.98%이었다. 문항-총점 상관성이 .3이하인 문항은 없었고 내적 일치도 α 는 .88이었다.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를 요인 분석, 사각 회전한 결과 3요인이 도출되었다. 표 1에서 보면 요인 1은 문항 1~6번으로 “친밀한 이성관계를 지속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문항 7~11번으로 “상대방이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접촉하려는 의도나 정도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어 “이성관계의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요인 3은 12, 13문항으로 “연애시의 성적,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지각”을 반영하고 있어 “성접촉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이중 1요인은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정도 척도와 달리 한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성과 깊이 등 관계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 3요인은 이성관계 및 성적 접촉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척도의 고유근 합은 8.02, 설명변량은 61.68%이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표 1. 각 척도의 요인구조 및 문항-총점 상관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동분	문항-총점 상관
지각된 신체적 매력	1. 나에게서 신체적 매력이 있다.	.787			.619	.756
	2. 나에게서 성적인 매력이 있다.	.887			.701	.767
	3. 남자(여자)들이 나에게 신체적 매력을 느낀다.	.883			.780	.826
	4. 남자(여자)들이 나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892			.796	.849
	5. 나에게서 이성을 끄는 성적,신체적 매력이 있다.	.927			.859	.885
	6. 나에게 성적,신체적 매력을 느끼는 이성이 많다.	.820			.672	.785
자기 지각된 교제성공	1.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 남성(여성)도 따라서 호응하고 나를 좋아해준다.	.643			.413	.584
	2. 나는 이성의 호응을 쉽게 받는다.	.871			.759	.782
	3. 나의 관심을 끌거나 잘 보이려는 남자(여자)들이 많다.	.833			.694	.748
	4. 남자(여자)들이 나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487			.238	.475
	5. 나는 남자(여자)들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았다.	.619			.373	.546
	6. 남자(여자)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830			.689	.751
	7. 나는 남자(여자)들로부터 관심이나 잘 보이려는 칭찬(아첨)을 많이 받지 못한다.	.457			.209	.443
과거의 성적접촉 및 관계 성공	1.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성친구를 쉽게 사귀 편이었다.	.941			.780	.581
	2. 나는 이성친구를 많이 사귀 편이었다.	.786			.712	.693
	3. 나는 이성친구와 성적 접촉이나 신체적 애정표현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	.550			.447	.627
	4. 성적,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이성친구가 많은 편이었다.		.646		.659	.756
	5.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성친구가 많은 편이었다.		.834		.812	.772
	6. 애인 외에도 성적,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가 많은 편이었다.			.924	.810	.697
	7. 애인 외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다른 파트너가 많은 편이었다.			.956	.820	.673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정도	1.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다.	.764			.679	.715
	2. 나는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다.	.629			.576	.692
	3.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863			.720	.692
	4. 나는 연애관계를 깊이, 오래 유지할 것 같다.	.571			.327	.505
	5. 결혼을 해도 별거하거나 이혼할 것 같다.	.612			.411	.584
	6.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할 것 같다.	.588			.593	.351
	7. 연애를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차일 것 같다.		.590		.460	.568
	8. 나와 데이트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837		.659	.638
	9. 나와 성적,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727		.736	.671
	10. 나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722		.761	.755
	11.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나와 결혼하려하지 않을 것 같다.		.664		.624	.649
	12. 연애를 하면 그 사람과 성적,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823	.864	.487
	13. 연애를 하면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755	.608	.669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척도나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는 모두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나 믿음을 반영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두 척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높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매력의 부분적으로 이성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 지각 척도와 두 척도 간에도 긍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매력 지각 척도는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과도 긍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척도는 장기적 관계 추구를 반영하는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특히 요인 1)와 달리 관계의 양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척도 간에는 상관이 없거나 부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척도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정도(남: $M=76.08(SD=12.09)$, 여: $M=72.75(SD=10.41)$, $F(1, 242)=5.12, p < .05$)와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정도(남: $M=20.64(SD=10.67)$, 여: $M=16.37(SD=7.35)$, $F(1, 242)=12.52, p < .001$)에 남

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별 변인을 통제하고 각 척도 및 요인간의 부분상관계수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지각된 신체적 매력은 스스로 지각한 짝짓기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성관계 및 생식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는 정도(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이성관계의 자신감, 성 접촉 자신감)에 .43~.7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과거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 정도(과거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와도 .26~.39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가 지각하는 교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이성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생식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는 정도(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이성관계 자신감, 성 접촉 자신감)와 .33~.56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과거에 맺은 이성관계나 성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와도 .26~.44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과거의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정도는 장기적인 관계 추구 방식을 반영하는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정도와 개념적 차이가 있었다. 이를 요인 별로 보면 이성관계와 성 접촉 빈도는

표 2. 각 척도 및 요인간의 부분상관계수

	지각된 신체적 매력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이성관계의 자신감	성접촉 자신감
지각된 신체적 매력	1.00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72***	1.00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39***	.44***	1.00				
성적 파트너 수	.26***	.26***	.57***	1.00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5***	.39***	.15*	-.02	1.00		
이성관계의 자신감	.48***	.56***	.28***	.07	.65***	1.00	
(연애시의) 성접촉 자신감	.43***	.33***	.38***	.23***	.36***	.39***	1.00

*** $p < .001$, ** $p < .01$, * $p < .05$

동일한 척도에 속하는 과거의 성적 파트너수와 이성관계의 자신감,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반면에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은 동일한 척도에 속하는 성적 접촉 및 이성관계의 자신감과 .36~.65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로 볼 때 과거 성적 접촉 및 관계 성공 척도가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반영한다면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는 장기적, 수렴적 전략이라고 할 만 하므로, 두 척도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동일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에 속하는 요인 1(이

표 3.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매력, 짝짓기 성공 지각, 단기적/장기적 관계(남성)

남성	지각된 신체적 매력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이성관계 자신감	성접촉 자신감
사회적 평판	.49***	.59***	.13	.05	.58***	.54***	.31***
이타성 평판	.22**	.40***	.06	-.02	.44***	.41***	.19*
호혜성 평판	.22**	.32***	.00	-.10	.44***	.36***	.18*
책임감 평판	.34***	.65***	.10	.11	.48***	.43***	.19**
능력 평판	.45***	.49***	.25**	.19*	.41***	.44***	.31***
외모 평판	.70***	.65***	.17*	.11	.41***	.40***	.36***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표 4.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매력, 짝짓기 성공 지각, 단기적/장기적 관계(여성)

여성	지각된 신체적 매력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이성관계 자신감	성접촉 자신감
사회적 평판	.34***	.42***	.03	-.16	.50***	.43***	.15
이타성 평판	.12	.23***	-.03	-.09	.33***	.28***	-.00
호혜성 평판	.29***	.35***	-.02	-.14	.41***	.23*	.06
책임감 평판	.00	.06	-.10	-.25*	.36***	.21*	.21*
능력 평판	.23*	.32***	.04	-.05	.39***	.23*	.23*
외모 평판	.62***	.54***	.20*	.02	.25**	.44***	.44***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이 요인 2(이성관계 자신감), 특히 요인 3(성접촉 자신감)과 상관값이 높지 않고 요인 2와 3은 “관계 및 성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신감”이라는 다른 개념을 반영하고 있어, 이후 연구에서는 요인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짝짓기 성공 지각, 성적 전략의 차이

먼저 남녀별로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각 척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 4와 같았다. 남성의 경우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지각된 신체적 매력과 .22~.34의 상관을 보였고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각과도 .32~.65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친밀하고 지속적인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장기적 관계 추구와 .44~.48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대가 자신과 관계를 맺고 호응하리라는 자신감과 .36~.41,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성적 접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도 .18~.19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과거의 이성관계를 쉽게, 많이 맺었거나 성적 접촉을 했던 빈도 및 성적 파트너 수와 같은 단기적, 확산적 전략과는 상관이 없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이성관계를 형성하고, 상대가 자신과 관계를 맺고 호응하리라는 자신감 등 장기적, 수렴적 전략과 .21~.41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이성관계를 쉽게, 많이 맺었거나 성적 접촉을 한 빈도 및 성적 파트너 수와 같은 단기적, 확산적 전략과 상관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남성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책임감 평판만이 연애시의 성적 접촉에 대한 자신감과 .21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이타성과 책임감 평판은 지각된 신체

적 매력과, 책임감 평판은 교제 성공 정도의 지각과 상관이 없었으나 호혜성 평판은 지각된 신체적 매력에 .29, 호혜성과 이타성 평판은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에 각각 .35, .23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로 볼 때 남녀 모두에게서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신체적 매력, 짝짓기 및 번식 성공 가능성의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짝을 선호하는 단기적, 확산적 전략과 관련이 없으며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전략과 정적 관련이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능력과 외모에 대한 평판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높은 능력과 외모 평판은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수렴적 전략 및 추구와 .41의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이성을 쉽게, 많이 사귀거나 성적 접촉을 추구하고 성적 파트너 수가 많은 확산적 경험과도 .19~.25의 상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는 달랐다. 여성의 경우에 높은 외모와 능력 평판은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수렴적 전략과 .23~.44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외모 평판만 과거에 쉽게, 많이 이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을 했던 빈도와 .20의 상관이 있었을 뿐 과거 성적 파트너 수와는 상관이 없었다. 능력 평판 역시 과거 성적 접촉 빈도 및 성적 파트너 수와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평판 지각에 따른 매력과 짝짓기 성공 예측, 성적 전략 및 선호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 하 25%를 기준으로 평판 수준에 따른 차이검증을 남녀별로 시행하였다.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 수준에 따른 차이는 표

5, 6과 같았다. 표 5를 보면 남성의 경우 이타성 평판 지각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와 관계의도 자신감이 높았을 뿐 아니라 미래에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과거 이성관계와 성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등 단기적 전략에는 차이가 없었다. 호혜성 평판과 책임감 평판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호혜성과 책임감 평판 지각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높은 남성

들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전략 및 선호도가 높았으나 과거 이성관계와 성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등 단기적 전략에는 수준간 차이가 없었다.

여성에게서도 남성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6을 보면 이타성 평판 지각이 높은 여성들은 낮은 여성들에 비해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와 상대가 자신에게 호응하리라는 관계의도 자신감이 높았고,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전략 및 선호도가 높았다. 과거 이성관계와 성

표 5. 이타성, 호혜성 및 책임감 평판 지각에 따른 선호전략의 평균 및 차이검증(남성)

		높은 평판	낮은 평판	F	p
		M(SD)	M(SD)		
이타성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6.50(7.88)	23.24(7.61)	3.23	ns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0.70(6.94)	25.78(7.68)	8.35	**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10.03(5.43)	9.27(4.71)	.41	ns
	성적 파트너 수	8.358(4.94)	8.70(5.62)	.08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8.41(4.70)	31.81(6.08)	27.27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0.86(4.60)	26.06(5.60)	16.13	***
	성접촉 자신감	11.65(2.83)	10.62(2.15)	3.09	ns
호혜성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8.10(6.59)	22.77(7.16)	12.73	**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2.24(6.76)	26.53(5.85)	17.38	***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10.07(4.87)	9.60(5.01)	.19	ns
	성적 파트너 수	8.57(5.54)	9.44(5.63)	.52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8.90(4.70)	32.28(6.38)	30.05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26(4.34)	26.48(5.62)	19.31	***
	성접촉 자신감	11.83(2.51)	10.72(2.29)	4.63	*
책임감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9.00(6.72)	21.95(7.23)	20.13	***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2.59(5.97)	25.41(7.10)	23.47	***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9.68(5.09)	8.53(4.88)	1.07	ns
	성적 파트너 수	8.55(5.00)	7.57(4.99)	.77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8.94(4.41)	31.44(6.59)	35.31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76(4.43)	25.12(6.22)	28.79	***
	성접촉 자신감	11.78(2.57)	10.70(2.20)	4.23	*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등 단기적 전략이 나 선호도에 차이가 없었다. 호혜성 평판 지각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높은 여성들 역시 지각된 신체적 매력이나 교제 성공 정도 및 관계의도 자신감이 높았고,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전략 및 선호도가 높았으며, 과거 이성관계와 성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등 단기적 전략의 차이가 없었다. 책임감 평판 지각이 높은 여성들 역시 낮은 여성들에 비해 지각된 신체적 매력이나 교제 성공 정도 및 관계의도 자신감 등 짝짓기와 번식 성공 예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장기적 전략)이 높았다. 또한 과거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책임감 평판 지각이 낮은 여성들이 높은 여성에 비해 성적 파트너 수(단기적 전략)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이나 짝짓기 및 번식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단기적 전략보다 장기적, 수렴적 전략을 선호

표 6. 이타성, 호혜성 및 책임감 평판 지각에 따른 선호전략의 평균 및 차이검증(여성)

		높은 평판	낮은 평판	F	p
		M(SD)	M(SD)		
이타성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5.37(6.52)	23.00(6.72)	2.04	ns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0.80(8.39)	27.13(5.25)	4.16	*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8.02(4.27)	7.97(3.51)	.01	ns
	성적 파트너 수	5.22(2.92)	5.57(2.74)	.23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5.91(5.75)	32.79(6.04)	4.46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0.65(4.88)	27.86(4.53)	5.54	*
	성접촉 자신감	8.63(3.68)	8.93(3.09)	.13	ns
호혜성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6.63(7.98)	21.68(6.38)	6.85	*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2.03(7.53)	25.81(5.10)	13.65	***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8.55(4.48)	7.19(3.45)	1.72	ns
	성적 파트너 수	4.98(1.91)	5.36(2.20)	.56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7.00(4.33)	31.92(7.03)	13.05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23(3.70)	28.40(4.92)	6.95	*
	성접촉 자신감	8.90(3.50)	8.04(2.95)	1.04	ns
책임감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5.04(7.73)	23.91(7.77)	.32	ns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0.31(7.26)	28.44(6.06)	1.20	ns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8.76(4.60)	9.06(4.40)	.07	ns
	성적 파트너 수	4.76(1.33)	6.55(3.90)	6.11	*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7.57(4.18)	32.25(6.73)	13.07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14(4.06)	28.15(4.80)	6.66	*
	성접촉 자신감	10.00(2.78)	8.38(3.44)	3.97	ns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런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에서는 남녀간의 성적 전략이나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능력과 외모 평판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외모 평판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지각된 신체적 매력과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가 높았으며, 한 사람과 친밀하며 지속적인 이성관계를 추구하고, 이성이 자신에게 호응하고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높았다. 또한 성적 파트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과거에 여러 이성을 쉽게, 많이 사귀 빈도나 성적 접촉 빈도가 높았다.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 지각된 신체적 매력과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 및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

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상대가 자신에게 호응하고,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높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과거에 여러 이성을 쉽게, 많이 사귀 빈도나 성적 접촉 빈도도 높았으며, 성적 파트너 수도 많았다.

여성의 결과는 남성과 달랐다(표 8). 남성에서와 같이 외모 평판이 높은 여성들은 외모 평판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지각된 신체적 매력, 지각된 교제 성공 정도,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이성관계의 추구, 상대가 자신에게 호응하리라는 자신감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에서와 달리 외모 평판에 따른 성적 접촉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 과거 여러 이성과 쉽게, 많이 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을 한 빈도, 성적 파트너 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능력 평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능

표 7. 외모 및 능력 평판 지각수준에 따른 선호전략의 평균 및 차이검증(남성)

		높은 평판	낮은 평판	F	p
		M(SD)	M(SD)		
외모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31.33(5.41)	20.36(6.79)	65.16	***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4.03(5.90)	23.59(5.63)	66.89	***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11.05(4.87)	7.84(4.56)	9.60	**
	성적 파트너 수	9.28(5.48)	7.50(4.83)	2.47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8.95(3.77)	33.23(5.88)	27.01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77(3.87)	26.32(5.51)	26.52	***
	성접촉 자신감	12.56(1.63)	10.30(2.60)	21.95	***
능력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9.68(7.11)	19.56(7.11)	35.20	***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33.29(7.12)	24.38(7.14)	27.18	***
	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10.33(5.29)	6.90(4.17)	8.84	**
	성적 파트너 수	8.67(5.56)	6.26(3.79)	4.24	*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8.46(4.52)	31.84(6.41)	25.89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74(3.73)	25.16(5.84)	33.23	***
	성접촉 자신감	12.03(2.21)	9.91(2.87)	12.39	**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적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력 평판이 높은 여성들 역시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교제 성공 정도에 대한 지각 및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상대가 자신에게 호응하리라는 자신감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에서와 달리 능력 평판에 따른 지각된 신체적 매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애를 하면서 성적 접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나 기대, 과거 여러 이성과의 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을 한 빈도, 성적 파트너 수의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능력 및 외모 평판이 높은 남녀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명확하였다. 외모 평판이 높은 남성은 외모 평판이 높은 여성에 비해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남성: $M=38.95$ (2.77), 여성: 36.37 (5.23), $F(1, 67)=5.68$, $p < .05$)도 높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성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가 높았으며(남성: $M=12.56$ (1.64), 여성

: $M=8.87$ (3.38), $F(1, 67)= 35.87$, $p < .001$) 성적 파트너 수가 많았다(남성: $M=9.29$ (5.48), 여성: $M=5.80$ (3.54), $F(1, 67) =9.15$, $p < .01$). 특히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성적 접촉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이 높았고(남성: $M= 12.03$ (2.21), 여성: $M=8.58$ (3.44), $F(1, 73)=27.00$, $p < .001$) 성적 파트너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남성: $M=8.67$ (5.56), 여성: $M=5.06$ (2.20), $F(1, 73)=13.23$, $p < .01$)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남성: $M=29.68$ (7.11), 여성: $M=25.94$ (7.25), $F(1, 73)=5.02$,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사회적, 진화적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화생물학

표 8. 외모 및 능력 평판 지각수준에 따른 선호전략의 평균 및 차이검증(여성)

		높은 평판	낮은 평판	F	p
		M(SD)	M(SD)		
외모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9.70(6.47)	19.84(6.76)	34.31	***
	자각지각된 교제 성공	34.93(5.85)	26.70(5.18)	35.13	***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9.73(4.57)	8.15(3.89)	2.20	ns
	성적 파트너 수	5.80(3.53)	5.81(2.85)	.00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6.37(5.23)	32.81(5.77)	6.44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2.47(3.31)	27.66(4.46)	23.00	***
	성접촉 자신감	8.87(3.38)	7.97(3.27)	1.13	ns
능력 평판	지각된 신체적 매력	25.94(7.25)	22.68(7.03)	3.48	ns
	자각지각된 교제 성공	31.19(6.58)	26.03(7.46)	9.05	**
	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8.14(4.40)	8.00(3.38)	.02	ns
	성적 파트너 수	5.06(2.20)	5.13(1.83)	.02	ns
	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37.28(3.95)	31.58(5.42)	24.63	***
	상대의 관계의도 자신감	31.31(3.70)	28.48(5.09)	6.86	*
	성접촉 자신감	8.58(3.44)	8.29(3.60)	.12	ns

*** $p < .001$, ** $p < .01$, * $p < .05$

주. 장기적 전략=이성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단기적 전략=이성관계와 성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

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무리에는 언제나 속임수(cheating)나 무임승차(free-riding)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일 한 개체가 사기나 배신을 당한다면 생존과 번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을 것이다(Alexrod, 1984; Cosmides & Tooby, 1992).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판은 공동체에서 서로 호혜적으로 반응하고 협동할 대상을 선택하며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평판을 받은 사람을 신뢰와 협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평판에 이런 진화적,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면 나쁜 평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생존과 번성에, 즉 짝짓기나 번식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며,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매력 역시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며 짝짓기와 번식 성공의 예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성과 깊이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은 사람이 만일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추구한다면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 온) 판별 기준의 원리에 위배되며 우리가 진화시켜 온 선호도나 선택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셈이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설 1, 2는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에서 자신의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미래에 지속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이 자기에게 호응하며, 결혼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나 기대가 높았다. 즉, 짝짓기와 번식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높았

다. 또한 이타성, 호혜성 및 책임감 평판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선호하였으며 다수의 짝을 추구하는 단기적, 확산적 전략과는 상관이 없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에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녀 모두 친절하고 온정적이며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사람을 장기적 배우자로 선호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Buss & Barnes, 1986; Swami et al, 2008)와도 일치한다.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은 단기적인 성적 전략을 방해하거나 선호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하는 것 같으며, 우리는 남녀 모두 이타적이고 호혜적이며 책임감이 높다는 평판의 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성이나 호혜성 및 책임감 평판이 우리가 무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데 중요한 선택 기준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짝짓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임을 시사한다. 만일 우리가 배우자의 배신을 당한다면 출산이나 자녀 양육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Geary, 2000; Shackelford, Buss, & Bennett, 2002). 그래서 남녀는 배신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질투라는 기제를 진화시켰다(Symons, 1979). 그러나 질투라는 심리적 기제는 연애나 짝짓기 이후의 단계에서 작동한다. 또한 배신을 탐지하고 배우자를 감시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Buss, 1988; Buss, Larsen, Westen, & Semmelroth, 1992) 배우자의 인성을 바꿀 수는 없으며 배우자를 교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짝짓기 이전에 좋은 상대를 감별할 수 있는 기제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배우자 선택 단계에서부터 이타적이고 호혜적

이며 성실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진화한 것 같다. 이타성이나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협동 상대를 감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선택에서도 중요한 기준인 것 같다. 우리는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성실하며,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베풀면 보답하는 상대를 선호하며 이런 사람을 중요한 동료 혹은 배우자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이타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호혜적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지각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타성이나 호혜성, 책임감 평판은 사회적 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상호 신뢰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외모나 능력에 대한 평판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외모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장기적 전략과도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과거 이성관계와 성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와도 정적 상관이 있었다. 외모 및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과 낮은 남성을 차이 검증한 결과,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성적 파트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과거 여러 이성을 쉽게, 그리고 많이 사귀 빈도나 성적 접촉 빈도가 높았다. 특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남성들은 능력에 대한 평판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과거 여러 이성들을 많이, 쉽게 사귀 빈도나 성적 접촉 빈도가 높았으며 성적 파트너 수도 많았다. 이는 남성의 단기적 전략에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능력에 대한 평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남성일수록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외모 및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 역시 이러한 평판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외모 및 능력 평판이 높은 남성들 역시 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평판이 높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짝짓기 관계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다만 장기적 전략과 동시에, 혹은 조건적으로(단기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특히 능력 평판이 높은 경우일수록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도 기본적으로는 장기적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평판이 높을수록, 특히 능력에 대한 평판이 높을수록 단기적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외모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판은 자신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재정적 잠재성의 중요도, 교육수준과 전문성 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Buss, 1989; Buss & Schmitt, 1993; Buss et al., 2001, Wiederman, 1993) 특히 단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여성일수록 남성의 즉각적 자원 제공 여부와 신체적 매력에 큰 비중을 둔다(Buss, Schmitt; 1993; Gangestad & Simpson, 2000; Smith, 1984; Smuts, 1992). 따라서 능력이나 외모가 출중하다는 평판은 배우자 대상으로, 특히 단기적 파트너로써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로 남성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을 둘 다 선호

하는데, 이러한 전략이 “동시에” 공존하는가, 혹은 “조건적으로” 출현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남성은 장기적 전략에 의지하는 반면 다른 남성은 단기적 전략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다. Trivers(1972)와 Gross(1996)에 의하면 인간의 성적 전략은 조건적(conditional)이다. 대부분의 남성은 일차적 관계에 깊이 투자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부성을 확실시하는 이득을 얻었을 것이며, 단기적 짝짓기에 대한 욕망은 조건부적으로 표현되었다(Gangestad & Simpson, 2000). 남성의 진화과정 속에는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욕구나 선호도의 형태로 동시에 공존하며, 양자에는 욕구의 양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되면 단기적인 짝짓기 전략이 출현하거나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판이 이런 특정 조건의 하나일 수 있다. 여성이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남성을 짝짓기 대상으로, 특히 단기적 파트너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바, 무리에서 외모나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판은 단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내적,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는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랐다. 여성은 외모나 능력에 대한 평판이 높을수록 한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장기적, 수렴적 전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모 평판만이 과거 이성관계 및 성적 접촉 빈도와 약한 상관이 있었을 뿐 성적 파트너 수와는 상관이 없었다. 또한 능력에 대한 평판은 과거 성적 접촉 빈도 및 성적 파트너 수와 상관이 없었다. 차이검증 결과,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여성들은 낮은 여성들에 비해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이성관계를 추구하는 경향

이 높았다. 그러나 성적 접촉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대, 과거 여러 이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을 한 빈도, 성적 파트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과 낮은 여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한다는 점 외에는 외모 평판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달리 외모 및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장기적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며, 단기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과 달리 여성은 전반적으로 한 사람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모나 능력에 대한 평판이 높다고 해서 이러한 장기적 전략이나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모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여성들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선호하였다.

능력 및 외모 평판이 높은 남녀를 서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외모 및 능력 평판이 높은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과거 이성관계나 성적 접촉 빈도, 성적 파트너 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능력 및 외모 평판이 높은 남성들, 특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높은 남성들이 단기적, 확산적 전략을 구사하며 이런 경험을 하였음에 비해 여성들은 외모나 능력에 대한 평판에 관계없이(혹은 외모나 능력 유능감 평판이 높은 여성들이 더욱)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이나 선호도를 발전시켰음을 시사한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모계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더욱이 여러 남성과 단기적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다산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남성에 비해 매우 적다. 이런 진화적 관점과 일치하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나 능력은 그 사람이 뛰어나다는 징표이며, 남성에게는 이런 평판들이 단기적인 짝짓기 전략의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여성에게는 장기적인 짝짓기 전략의 자산이 되는 것 같다. 외모나 능력에 대한 평판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에 비해 오히려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이성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장기적 파트너를 만날 때도 신체적 매력을 선호한다(Furnham, Moutafi, & Baguma, 2002; Singh & Young, 1995). 그러므로 여성에게 외모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은 자신이 좋은 장기적 배우자감임을 나타내는 자산일 것이다. 그러나 평판에 상관없이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이성을 쉽게 많이 사귀거나 성적 접촉을 한 정도, 성적 파트너 수 등이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즉, 평판 요인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단기적 전략을 선호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적 태도나 행동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Buss & Schmitt, 1993; Gangestad & Simpson, 2000)에 따르면 여성도 단기적인 전략을 구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선호하므로 남성에 비해 단기적 전략을 구사할 잠재성이 매우 낮았다. 만일 여성이 단기적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특정한 상황에 처할 때이며, 그 맥락이나 조건은 남성과 매우 다를 것이다. Greiling과 Buss(2000)는 기존의 여러 가

설을 종합하여 여성이 단기적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좋은 유전자, 자원의 획득, 배우자 교체, 짝짓기 기술의 획득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중 배우자 교체와 자원 획득 가설의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한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여성이 단기적 전략을 추구할 때는 자원의 결여나 나쁜 유전자로 인한 높은 유아 사망,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정 같은 심각한 유전적, 환경적 변화가 있을 때임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성도 단기적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전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남성에게는 단기적 전략과 장기적 전략이 동시에 혹은 조건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단기적 전략의 출현에 능력이나 외모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에게는 장기적인 성적 전략이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특정 상황(조건)과 맞닥트릴 때 단기적 전략이 출현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평판을 심리적 기제로 개념화한 후 짝짓기 선호도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성적 선호도나 전략, 행동이 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 문화에서와 같이 부계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이 단기적 성적 전략을 추구하고 이에 성공한다면 능력이 높다는 평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성이 단기적인 성적 전략을 추구한다면 문란하다는 평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부와 비난, 소외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Buss & Schmitt, 1993). 즉, 배우자 획득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배우

자와 가족의 도움 없이 자손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성적 선호도나 행동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문화를 포함한 동양 문화나 이슬람 문화처럼 부계 중심적이고 여성의 인권이 억압된 문화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소집단에서 진화한 인간의 무리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적응과 번식에 미치는 방향적 영향을 검증하였지만 사회적 평판과 성적 선호도, 전략 및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평판이나 성적 선호도, 전략에는 문화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평판의 발달적 근원이 수백만년에 걸쳐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진화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행동에는 문화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Barash(1986)은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를 구분하면서 현대 사회에는 문화적 진화의 속도가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를 앞서고 있다고 하였다. 즉,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를 압도하여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문화가 추구하는 방향이 진화적 방향과 일치하면서 진화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문화적 추구하고 진화적 추구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권을 포함한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평판이나 성적 전략이나 추구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에 문화적 영향력과 진화적 영향력 중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강화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깊이 심사숙고할 문제로 보인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한 개체에 부여하는 평가를 그 개인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사람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다른 사람들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본다)와 자신의 특성에 대한 지각(나는 ...한 사람이다)을 혼돈할 수도 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를 평가할 때 자존감을 고양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자기-고양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Greenward, 1980; Talyor & Brown, 1988) 긍정적 편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개체에 부여하는 평판에 비해 지각된 평판이 부정확하거나 자기-고양적 편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소속감과 관계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Bausmeister & Leary, 2003), 사회적 수용이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La Guardia, Couch, Couchman, & Deci, 2000)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평판 수준에 따른 짝짓기 성공, 장기적, 단기적 성적 전략이나 선호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이타성, 호혜성, 책임감, 외모, 능력 평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각된 평가와 자기 안에 내재하는 특성으로 분리하여 양자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한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평판이 주변 사람들의 실제 평판과 어느 정도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가, 그리고 실제 평판이 한 개인의 적응도나 성적 전략,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포함한 실험설계나 자연적 상황에서의 연구, 실제 행동 자료의 수집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수행되었으며 질문지에는 성적 태도나 성적 경험, 행동들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서구 사회에 비해 성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적 문화에서 성적 행동이나 선호도 등에 대해 정직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보고가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나 종단적 추적 연구, 자연관찰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 이홍표, 한성열 (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진화심리학적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1-16.
- 이홍표, 이홍석 (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29-344.
-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서울.
- Alexander, R. D. (1987). *The biology of moral systems*. New York: Aldine DeGruyter.
- Alexander, R. D., & Noonan, K. M. (1979). Concealment of ovulation, parental care, and human social evaluation. In N. A. Chagnon & W. Irons(Eds). *Evolutionary biology and human social behavior: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pp. 402-435). North Scituate, MA: Duxbury Press.
- Alex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aumeister, R. F., & Leary, M. R. (2003).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 497-529.
- Barash, D. P. (1986). *The hare and the tortoise: Culture, biology, and human nature*. New York: Penguin.
- Buss, D. 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nd Ed. Pe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Buss, D. M. (1994). Sexual strategies theory: Historical origins and current statu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 1, 19-31.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1988). From vigilance to violence: tactics of mate retention in American undergraduates. *Ethology and Sociobiology*, 9, 291-317.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D. M. Larsen, R. J., Westen, D., & Semmelroth, J. (1992). Sex differences in jealousy: evolution, physiology and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3, 251-255.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 Larsen, R. J. (2001). A half century of American mate pre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91-503.
- Cosmides, L., & Tooby, J. (1992). Cognitive adaptations for social exchange. In J.

- Barkow, L. Cosmides, & J. Tooby(Eds.) The adapted mind(pp. 163-2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74-285.
- Davis, B. M., & Daly, M. (1997). Evolutionary theory and the human family.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72*, 407-435.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altruism. *Nature, 425*, 785-791.
- Furnham, A., Moutafi, J., & Baguma, P. (2002).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role of weight and waist-to-hip ratio on judgement of women's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729-745.
- Gangestad, S. W., & Buss, D. M. (1993). Pathogen prevalence and human mate preference.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89-96.
- Gangestad, S. W., & Simpson, J. A. (2000). The evolution of human mating: Trade-off and strategic pluralism.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3*, 573-644.
- Gangestad, S. W., & Simpson, J. A. (1990). Toward an evolutionary history female sociosexual var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8*, 69-96.
- Geary, D. C. (2000). Evolution and proximate expression of human paternal inve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77.
- Greenwar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3.
- Greiling, H., & Buss, M. (2000). Women's sexual strategies: the hidden dimension of extra-affair mat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929-963.
- Goetz, A. T., Shackelford, T. K., Weekes-Shackelford, V. A., Euler, H. A., Hoier, S., Schmit, D. P., & LaMunyon, C. W. (2005). Mate retention, semen displacement, and human sperm competi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actics to prevent and correct female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8*, 749-763.
- Gross, M. R. (1996). Alternative reproductive strategies and tactics: Diversity within sexes.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11*, 92-98.
- La Guardia, J., Ryan, R. M., Couchman, C.,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Landolt, M. A., Lalumiere, M. L., & Quinsey, V. L. (1995). Sex differences in intra-sex variations in human mating tactics: An evolutionary approach.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3-23.
- Mohtashemi, M., & Mui, L. (2003). Evolution of indirect reciprocity by social information: The role of trust and reputation in evolution of altruism.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 523-531.
- Ohtsuki, H., & Iwasa, Y. (2004). How should we define goodness?-reputation dynamics in indirect reciprocity.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1*, 107-120.
- Oliver, M. B., & Hyde, J. S.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 Robert, B. W., & Robins, R. W. (2000). Broad dispositions, broad aspirations: The intersec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major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Bulletin*, 26, 1284-1296.
- Schmitt, D. P., & Buss, D. M. (2001). Human mating poaching: Tactics and temptations for infiltrating existing mate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894-917.
- Schmitt, D. P., Shackelford, T. K., & Buss, D. M. (2001). Are men really more 'oriented' toward short-term mating than women? *Psychology, Evolution, Gender*, 3, 211-239.
- Shackelford, T. K., Buss, D. M., & Bennett, K. (2002). Forgiveness or breakup: Sex differences in responses to a partner's infidelity. *Cognition and Emotion*, 16, 299-307.
- Simpson, J. A., & Gangestad, S. 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sexuality: evidence f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70-883.
- Singh, D., & Young, R. K. (1995). Body weight, waist-to-hip ratio, breasts, and hips: Role in judgements of female attractiveness and desirability for relationships.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483-507.
- Smith, R. L. (1984). Human sperm competition. In R. L. Smith, *Sperm competition and the evolution of mating systems*(pp. 601-659). New York: Academic Press.
- Smuts, B. (1992). Male aggression against woma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uman Nature*, 3, 1-44.
- Swami, V., Miller, R., Furnham, A., Penke, L., & Tovee, M. J. (2008). The influence of men's of men's sexual strategies on perceptions of women's bodily attractiveness, health and fert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98-107.
- Symons, D. (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obin, R. M., Granziano, W. G., Vanman, E. J., & Tassinari, L. G. (2000). Personality, emotional experience, and efforts to control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56-669.
- Townsend, J. M. (1989). Mate selection criteria: A pilot study. *Ecology and Sociobiology*, 14, 305-330.
- Trivers, R. L. (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B. Campbell(Ed.), *Sexual selection and in the descent of man*(pp. 136-179). Chicago: Aldine.
- Trobst, K. K., Herbst, J. H., Master, H. L., III, & Costar, P. T., Jr. (2002). Personality pathways to unsafe sex: Personality, condom use, and HIV risk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117-133.
- Wiedermann, M. W. (1993). Evolved gender differences in mate preferences: Evidence from personal advertisements.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331-352.
- Wiederman, M. W., & Allegeier, E. R. (1992). Gender difference in mate selection criteria: Sociobiological or socioeconomic explanation? *Ecology and Sociobiology*, 13, 115-124.

원고접수일: 2008년 7월 7일

수정원고접수일: 2008년 8월 24일

게재결정일: 2008년 8월 26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3, 645 - 669

The Social and Evolutionary Utility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 The Difference between Mating Success and Sexual Strategy

Heung-Pyo Lee Su-Sie Kim

Department of Art Therap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aegu Cyber University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social and evolutionary utility in perceived social reputation. The result shows that in both men and women, those who have higher altruism, reciprocity and responsibility reputation one's physical attractiveness positive and had more confidence in mating and reproduction, and preferred long-term mating strategy. On the contrary, the appearance and ability reputation were making different impacts on sexual strategy or preference according to sex. Men who have great reputations on appearance and ability was seeking after the long-term strategy with one female, but simultaneously also had a high tendency of seeking after the short-term strategy with the frequency of past heterosexual relationships and sexual contacts, the number of sexual partners high. However, for women, regardless of the reputation of appearance or ability, the long-term strategy had been sought, and women who are in these higher reputations were seeking after the long-term strategy. In that context, it was dealt with that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sexual strategy, preference difference of men and women and influence of reputation on these differences.

Keywords: social reputation, mating, sexual strategy